

...waiting...

# 대림 ②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 “대림 제 2 주일”

인권 주일 (가해)

<http://www.sjkoreancatholic.org/>

[ 마태, 3.1-12 ]

2010.11.28.

## 금주의 강론

[ 허영업 마티아 신부님 강론에서 ]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1623-1662)은 위대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

였지만, 그리스도교의 사상가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세상의 삶과 신앙의 모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사색을 하던 중 1654년 11월23일 밤에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체험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체험이었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이라 생각했다. 마치 은총의 불같은 것을 체험한 파스칼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신비적 체험 후 매우 어렵게 지내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주고 신앙에 대한 글을 계속 집필했다.

그가 죽은 후 출판된 ‘팡세’에는 신앙적인 사색을 표현한 소중한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주옥같은 소중한 글들이 담겨 있다. “인간의 마음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악과 비참함 속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마다해야 한다.” 파스칼은 어느 날 갑자기 체험한 신앙의 체험 후 자신보다는 하느님만을 위해 살았다.

파스칼처럼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장면이 소개된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것이 아니라 행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는 하느님께 돌유대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7-8).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자기반성이나 참회 의식으로 되는 아가는 것이며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음과 정신,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회개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탄 전야 음악회 연습;** 성가대 연습실에서 12/3(금)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 **성심 성가대 정기 총회;** 12월 5일(일) 점심 식사후 연습실에서 개최합니다. 모든 성가대 단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재정결산 심의, 회칙 개정안 심의 (단원 회비 조항), 차기 단장 선출, 2011년 성가대 계획서 등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1개월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박 영아 소피아 자매님**은 11월 30일에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에제18,32)”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분 명상

♡ 한 걸음도 어지럽지 않게 하라. ♡ -백범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쓰던 단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한 걸음도 어지럽지 않게 하라. 오늘에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 따라 오는 이의 길이 될 터인즉."

그렇습니다. 눈 길을 걸을 땐 조심해야 합니다. 길이 눈으로 덮인 곳에서는 처음 걸어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길이 될 터이니까요.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거나 그 길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결국에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걸음도 어지럽히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토막 교리

“미사 도구(4)”

성체포(corporale. Corporal)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작은 아마포로 성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직이나 성함 밑에 깔아 두는 수건이다. 성체포는 성체강복, 성체현시, 성체거동, 성체행렬 등의 모든 전례가 거행될 때 성체 아래에 놓여진다.

주수병(酒水瓶. urceolus. Crutes)



미사 때 사용되는 물과 포도주를 담는 작은 병이다. 보통 유리나 쇠로 만들어지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마개가 달려 있고 받침 점시도 있다. 물이 들어 있는 병과 포도주가 들어 있는 병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